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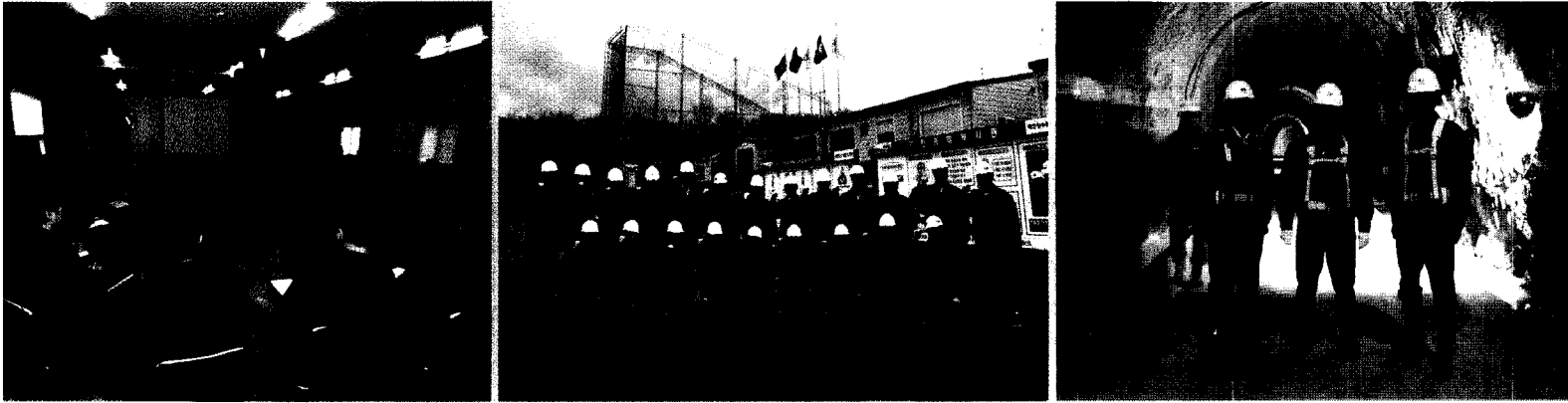
자타가 공인하는 무재해 사업장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현장’

서울에서 출발, 문막과 원주를 거쳐 단양 IC까지 3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렸다. 단양 IC에서 예천으로 향하는 길, 굽이 굽이 꺾어진 산길 속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는 눈발이 흩날리나 싶더니 빗방울까지 간간히 떨어졌다. 뒤송송한 날씨 탓인지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인지 초조함인지 모를 개운치 못한 기분이 슬며시 밀고 올라왔다. 하지만 이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현장의 넓은 부지가 한 눈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내 마음도 한 번에 뚫려버렸다. 가장 먼저 들어선 현장사무실,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웃음으로 우리의 방문을 반겼다. 그 모습에서 인간미 넘치는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져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현장 취재에 나설 수 있었다.

취재 | 임동희 기자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그리고 안전의 일상화

예천양수발전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조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일 오전 6시 40분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직원, 근로자 모두 간단한 체조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로부터 금일작업내용과 함께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여기에서 다시 관리감독자가 추가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전일 중대 사고뉴스를 공지시키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 직원에게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작업반장이 금일작업에 대한 안전한 작업방법과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체크한 뒤 각 공정별로 작업인원을 배치한다.

이러한 안전활동들이 오래전부터 일상화되면서, 이곳 예천양수발전소 건설현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안전현장이 됐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재해 2배수를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안전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되기까지도 했다.

대림의 안전문화 'SORA' 그리고 '교차점검'

예천양수발전소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대림산업의 안전경영시스템인 SORA를 따른다. 이는 본사와 현장,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일원화 하는 시스템이다. 협력업체 소장은 전일 작업했던 내용과 위험했던 내용, 이에 대한 대책까지 작성하여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및 일일안전소장은 매일 현장을 점검하고, 작성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작성한다. 이것이 SORA의 위험요소 발굴시스템이다.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에 대한 것부터, 설비, 기계, 기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요소와 계절적인 위험 요소까지도 모두 여기에서 발굴된다.

또한 이곳 현장에서는 공정별로 직원과 협력업체를 세 분류로 나눈 뒤 다른 공정 및 협력업체를 점검하는 이른바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요소를 다른 시각에서 찾아 보고자하는 취지다. 매일 반복되는 공정 속에 놓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신규채용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감성교육을 통한 심층 면접이 강력히 실시되고 있다. 잠재 위험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근로자나 사고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유소건자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소 3개월 동안은 신규자의 음주여부, 출근 일수, 동료들 반응, 멘토의 생각, 안전에 대한 행동 등 신규자들의 생활을 전 방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최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공정 추구

지금까지 이곳 현장이 무재해를 이어온 데에는 최대한 안전과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현장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공법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수압터널과 관련한 공정방식이다. 상부지와 하부지, 발전소를 연결하는 지하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수압터널(530M)이 뚫렸다. 여기에는 RBM방식에 수직도 유지장치(RVDS)를 장착하여 시공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보통 RBM방식은 유도공 굴착시 암질의 변화와 불연속면 등에 대해 트리곤 비트가 수직도를 정확히 유지하지 못하여 약간의 편차(약 1%)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RVDS방식은 수직편차 발생 시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수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비용 문제로 인해 선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RVDS 방식을 채택, 수직도 편차 0.03%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기록했다. 정확성과 시공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지는 RVDS방식 채택은 비용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예천양수발전소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오늘의 무재해는 준공 후에도 계속된다.

앞으로도 예천양수발전소 건설현장의 안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올해 추진할 중점 사항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확보, 자율안전 분위기 확대, 위험작업관리 강화, 신규근로자 안전확보, 위험공종관리감독자 상주 등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안전시스템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그동안의 무재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각오다.

회사 전 소속원 모두 인간존중이념을 충실히 시행하여 사고가 없는 쾌적한 사업장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예천양수발전소 건설현장,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과 직원, 작업반장, 그리고 근로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이곳 현장의 무재해 기록은 앞으로 준공식까지, 아니 그 이후 발전소 수명이 다하는 100년 후까지 계속될 것이다. ☺

그동안 우리현장은 공정 뿐만 아니라 안전분야에서도 최고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여러분들이 철야작업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 및 현장 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준공시까지 무재해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첫째 깨끗한 현장 만들기는 안전의 기본입니다.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자재 공구를 깔끔하게 정리 정돈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안전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직원, 근로자 모두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무재해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신규근로자에 대한 특별관리입니다. 신규자들의 교육 뿐만 아니라 초기의 특별관리는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학원 예천양수발전소 현장소장

본사 안전점검을 위해 점검원과 작업통로가 아닌 시스템동바리 횡대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안전조회 때 한 근로자 분이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안전교육때 작업통로를 이용하라고 하시더니...” 하늘이 노랑고 빙빙 돌았습니다.

이렇듯 근로자들의 안전마인드가 우리 현장의 안전문화에 큰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안전관리자들에게도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관리자들은 근로자 여러분들과 동고동락 한다는 것을 늘 염두해 두고, 현장의 무재해를 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천 양수발전소 현장을 이끄는 안전관리자 최수호대리·원분희차장·김원준사원(왼쪽부터)